

공정거래 위반 1위는 '불공정 하도급'

공정위 광주사무소 20년간 3704건 접수 중 1726건 달해

지난 20년간 호남·제주지역에서 처리된 공정거래 위반 사례 중 1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1990년 8월 광주사무소를 개소 이래 지난해까지 3704건의 공정거래 위반 사건이 접수돼 이 중 97.9%인 3627건을 처리했다. 개소 초기인 1994년 37건에 불과했던 위반 행위 처리 건수는 지난해 443으로 1197%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1726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640건(17.6%), 부당한 표시광고 517건(14.2%),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251건(6.9%), 부당공동행위 150건(4.1%), 전자상거래 위반 82건(2.2%), 가맹사업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각각 40건(1.1%) 등이었다. 처리 결과는 경고 조치가 1046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정

명령 521건(14.3%), 고발 32건·과징금 130건·공표 등 359건), 조정 176건(4.8%), 시정권고 79건(2.1%), 과태료 10건(0.2%), 기타 1769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경고조치에 그치고 고발·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은 적은 것은 사업자들이 영세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법

위반이 급증한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발굴·개선하고 하도급·납품업체 등 중소기업 애로 파악, 담합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소비자 주권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2일 오전 11시 라마다호텔 광주프라자 4층 연회장에서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광주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직원들 모습.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신세계 친환경 경영

교통유발부담금 줄이기 캠페인
자전거 출퇴근·대중교통 장려

(주)광주신세계(대표 이장환)가 친환경 경영의 하나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또 매주 일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백화점과 이마트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키로 했다.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출퇴근용 자전거를 대여해주며 교통카드 이용 실

적에 따라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이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온도줄이기 캠페인을 비롯해 광고탑·외부등 점등시간 조정 및 비매장부문 20% 절전운동, 급수시설 절수 및 공기조 가동시

간 조정 등 사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올 1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00여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이장환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을 통한 에너지 줄이기 캠페인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산 325조 '우리금융' 민영화

광주국세청 작년 떼인 세금 2300억원

금융권 지각변동 오나

하나금융 인수 적극 검토

정부가 6년 묵은 숙제인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8월 초 우리금융 매각 주관사 공모를 내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분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할 산도 적지 않다.

누가 우리금융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금융권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환은행 매각,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 등과 맞물리면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 KB금융(자산 325조6천억원)과 우리금융(325조4천억원)을 합병하면 자산규모가 650조원을 넘어 아시아 9위권의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196조원)을 합치면 자산규모가 521조원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313조4천억원)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선다.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M&A 대상으로 우리금융을 1순위로, 외환은행을 차순위로 꼽고 있다.

KB금융도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꼽힌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최근 M&A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지만 금융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금융이 매물로 나오는 만큼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 인수전에 고배를 마시는 곳은 외환은행과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수면 아래로 다시 잠복한 메가뱅크론이 우리금융 민영화를 계기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대형화 규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은행은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변수와 '변양호 신드롬', 노조의 반발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금융권 노조에서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금융 지분의 분산 매각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떼인 돈으로 결손 처리한 세금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광주 1059억원, 전남 1247억원으로 모두 2306억원이었다.

지난해 광주에서 새로 발생한 체납액 3746억원을 포함해 작년말 기준 체납 발생 총액은 431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76.5%인 3300억원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1010억원을 정리하지 못했다.

전남은 지난해 3562억원의 체납액에 새로 발생했으며 체납발생 총액은 3906억원이었다. 이중 2924억원(74.8%)은 정리했으며 982억원이 미정리 금액으로 남았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고액체납자는 모두 90명이었으며 명단공개자의 납부 세액은 107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 총 체납액(8216억원)의 1.3%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새로 발생한 체납액 16조7605억원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20조668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0%인 16조5026억원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4조1659억원은 정리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196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35조2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000억원)의 12%에 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습뉴스

光銀 하반기 인턴사원 100명 모집

5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광주은행은 1일 올해 하반기에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턴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은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모집하며,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광주은행은 3개월동안 사전 입문교육과 취업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턴 사원에게는 월 10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며 인턴십 평가 우수자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시 우대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또 지역대학과 연계 채용을 앞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현장실습과정'도 실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주간 증시 포커스

원화 강세 등 외환시장 주목

대형수출주 리스크 관리 필요

7월 중 코스피지수는 3.6% 상승했다. 주요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었다.

실적시즌을 맞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5월 말 이후의 가파른 상승세로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연중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였던 코스피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4.5%로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8월 증시의 관건은 이같은 고가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지난 주 한때 177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지수는 다시 1700대 중반으로 밀려났다. 지수 결정력이 높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 일주일동안 1조1000억원, 7월 한 달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증시에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면 벽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7월 중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

간 자금이 2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2조원에 달하는 자문형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 개인성 자금이 증시에서 크게 이탈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7월 하반기 들어 지수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인기를 끌었던 개별종목들은 조정 폭이 점차 깊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8월 장세에 대한 경계감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8월 증시의 방향성은 국내 증시보다 글로벌 증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8월 장세에서의 전반적인 지수 높이는 내부보다는 외부 움직임에 맞춰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외환시장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두 달 동안 국내 증시의 주인공은 실적 성과를 반영하는 대형 수출주였다. 최근의 원화 강세 조정 및 하반기 글로벌 수요 둔화 개연성 등을 감안하면 IT·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들의 메리트는 7월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자문사 종목들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이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주도주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가격부담이 적은 종목에 초점을 맞춰 주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

주도주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가격부담이 적은 종목에 초점을 맞춰 주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1등 여행사 **6년연속 브랜드제 1위**

광주, 무인 장가계 직항

9월 17일~11월 30일 (연5회) 49,000원~

▶ 광주-무인 장가계 직항 1회 1인 49,000원
▶ 광주-무인 장가계 직항 2회 1인 98,000원
▶ 광주-무인 장가계 직항 3회 1인 147,000원
▶ 광주-무인 장가계 직항 4회 1인 196,000원
▶ 광주-무인 장가계 직항 5회 1인 245,000원

광주, 무인 중형, 마키오 직항

7월 31일~11월 30일 (연5회) 49,000원~

▶ 광주-무인 중형 직항 1회 1인 49,000원
▶ 광주-무인 중형 직항 2회 1인 98,000원
▶ 광주-무인 중형 직항 3회 1인 147,000원
▶ 광주-무인 중형 직항 4회 1인 196,000원
▶ 광주-무인 중형 직항 5회 1인 245,000원

광주, 무인 대만 직항

7월 31일~11월 30일 (연5회) 49,000원~

▶ 광주-무인 대만 직항 1회 1인 49,000원
▶ 광주-무인 대만 직항 2회 1인 98,000원
▶ 광주-무인 대만 직항 3회 1인 147,000원
▶ 광주-무인 대만 직항 4회 1인 196,000원
▶ 광주-무인 대만 직항 5회 1인 245,000원